



공동체 소식



## 목주 기도 성월

목주기도 성월은 개인과 가정성화, 인류구원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목주기도를 바치는 달입니다.

성모님의 공경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일체인 하느님을 지향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합니다.



10월 기도지향

- 현교정(돈보스코), 조경희(요안나 프란치스카) 가정
- 정석원(라파엘), 안혜진(임마콜라따) 가정

목주 기도 성월

전 세계 교회는 해마다 시월을 ‘목주 기도 성월’로 지냅니다. 목주기도를 자주 바치는 가운데 예수님과 성모님의 신비들을 깊이 묵상하여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깊게 하려는 것입니다. 목주 기도가 널리 확산되면서 1883년 레오 13세 교황은 시월을 ‘목주 기도 성월’로 정하며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위하여 목주 기도를 자주 바치자고 권고하였습니다.

10월 구역미사 안내

- 새로 부임하신 주임신부님과 공동체의 만남을 준비합니다. 많은 가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3구역 : 10/19(금) 오후 7시, 이우영(가브리엘) 형제 가정, 14304 Outlook St. Overland Park, KS 66223
  - \* 4구역 : 10/26(금) 오후 7시, 안병환(발렌티노) 형제 가정, 2624 W.145th St. Leawood, KS 66224

창세기 그룹공부

성경 통독 모임을 마치고 새롭게 성경 그룹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창세기 그룹 공부’는 첫 과정으로써 8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6-7명의 그룹원이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을 나누며 삶으로 실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일시 : **목요일 오전반/오후반**
- 신청 및 문의 : 주임 신부님 혹은 본당 홈페이지

주일학교 개학

우리 공동체의 희망인 어린이들의 주일학교가 개학을 하였습니다. 교육분과 박희영 카타리나 선생님을 중심으로 **교리, 문화, 인성 교육**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조연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 **10/14(일) 오전 9시부터**
- 장소 : 지하 교육관

한 주간 공동체 소식

- 1구역, 구역미사에 함께 한 모든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 10/13(토), 맨하탄 공동체 미사가 성 토마스 모어 성당에서 있었습니다.
- 다음 주일, 중심미사 후 <평화회의>가 있습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459	210	180, 188	439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이번주일	홍순익(마르띠노)	차호섭(요 셉)
	김준영(요 셉)	차서은(세라피나)
다음주일	정수한(베 드 로)	김태중(예레미아)
	정예찬(미 카 엘)	문예나(요 안 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대봉사	제2독서
이번주일	최은미(아 네 스)	안동현(프란치스코)
	김주연(세실리아)	지은경(리 브 가)
다음주일	박혜정(가타리나)	류기범(요 셉)
	김명은(안젤라)	신혜경(마 리 아)

애찬 봉사자

이번주일	김명은(안젤라), 조경희(요안나), 박희영(카타리나)
다음주일	지은경(리브가), 이대숙(사비나), 박정옥(수산나)

헌금 봉사자

이번주일	최은미(아 네 스)	문석찬(요 셉)
다음주일	신혜경(마 리 아)	박희영(카타리나)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 <10월 6일>
- 미사참례 : 93명
- 주일헌금 : \$586
- 교 무 금 : \$670



미사시간  
주 일 : 11: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 일 10:00 AM

#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8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재물에 대한 집착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게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갈 때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손에 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버릴 것을 다짐하며 정성스럽게 미사를 봉헌합시다.

### 성화해설

**삼성산**  
서울대학교,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삼성산은 1839년 기해박해 때 새남터에서 순교한 앙베르 주교와 모방·샤스탕 신부가 1843년부터 1901년 명동성당 지하묘소로 옮겨질 때까지 묻혔던 곳이다. 본래 삼성산으로 불리던 이곳은 세 순교성인이 묻힘으로써 명실 공히 삼성산(三聖山)의 품위를 갖추게 되었다. 순교한 후 한강변 모래톱에 묻혔던 순교자들의 시신은 죽음을 무릅쓴 교우들에 의해 수습되어 노고산에 가매장되었다가 4년 후 박 바오로에 의해 관악산 줄기 삼성산으로 이장되었다.

주홍식 파트리치오 신부 | 서울대학교 전산정보실장

**제 1 독서 :** 지혜 7,7-11 <나는 지혜에 비기면 많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화 답 송 :**



주 - 님 넘치도록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 한생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 날수 셀 줄 알기를 가르쳐 주시어 저희들 마음이 슬기를 얻게 하소서. 주님 돌아오소서 언제까지 오리까 당신의 종들을 어여버 여기소서. ◎
- 새벽부터 넘치도록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 한생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저희를 괴롭히신 그 날수만큼 저희가 불행하던 그 햇수만큼 그만큼 저희를 즐겁게 해주소서. ◎
- 당신께서 하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고 당신의 영광을 그 자손에게 보이소서. 주 저희 하느님의 어지심이 저희 위에 내리옵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

**제 2 독서 :** 히브 4,12-13 <하느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속생을 가려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 음 :** 마르 10,17-30 또는 10,17-27 <가진 것을 팔고 나서 나를 따라라.>

### 말씀의 이삭

##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오늘 복음은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에게 접근한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 청년은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시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이 부자였다는 사실을 들어서 재물이 신앙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당신을 따르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명령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을 따랐다.’** 는 오늘 복음에 베드로가 할 고백을 도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의 청년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분을 따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복음서는 말합니다.

복음서들 안에 재물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은 많이 있습니다. 마르코복음서는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재물의 유혹과...욕심이 밀고 들어오면 말씀이 숨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4,19)고 말합니다. 마태오복음서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6,24)고 말합니다. 재물에 대한 우리의 애착은 하느님도 이웃도 보지 못하는 경지로 우리를 쉽게 몰고 갑니다. 진지한 모든 종교는 어느 수준의 무소유(無所有)를 권장합니다. 재물이 발산하는 현란한 빛은 인간을 쉽게 무분별하게 만듭니다. 가진 것이 적으면, 사람이 돌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으로 혹은 값비싼 명품으로 스스로를 치장하면,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훼손 되기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 보잘 것 없는 인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집착하는 재물이 나에게 힘을 주는 지, 혹은 바울로의 말씀과 같이 하느님이 힘을 주시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신앙인은 하느님을 택한다고 약속한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때때로 하느님 앞에 눈 감고 앉아서 반성해 보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이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동기가 되도록 삶의 궤도를 수정합니다.

오늘 복음은 율법을 충실히 지키면서 재물과 명예를 얻기 위해 살기보다는, 많은 것을 버리고 잃는 아픔을 겪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권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분이 보여주신 선하신 하느님의 일을 실천하는 데에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병든 이를 찾아보는 선한 실천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좋은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시오.”** (마태 5,16)라는 예수님의 분부입니다. 선하신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선한 실천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 부산교구 서공석 신부

### 함께 나누어요

## 내가 이제야 깨달은 것은

서강대학교에 계시다가 모국인 필리핀으로 돌아가신 페페 신부님은, 얼마 전 파킨슨병에 걸려 치유(治癒)가 불가능하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페페 신부님이 제자에게 보낸 편지 글의 일부입니다.

“내가 이제야 깨달은 것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숨길 수 없다는 것,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교실은 노인의 발치라는 것, ‘하룻밤 사이의 성공’ 은 보통 15년이 걸린다는 것, 어렸을 때 여름 날 밤 아버지와 함께 동네를 걷던 추억은 일생의 지주가 된다는 것, 삶은 두루마리 화장지와 같아서 끝으로 갈수록 빨리 사라진다는 것, 돈으로 인간의 품격을 살 수 없다는 것, 삶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작은 일들 때문이라는 것, 하느님도 여러 날 걸릴 일을 우리는 하루 만에 하려 든다는 것,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사랑

이라는 것,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단 한번이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영원히 한(恨)이 된다는 것, 우리 모두 다 산꼭대기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행복은 그 산을 올라갈 때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페페 신부님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모든 진리를, 삶을 다 살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일까?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쉽고 간단한데, 진정한 삶은 늘 해답이 뻔한데, 왜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일까?”



### 교부들의 신앙

## 카이사리아의 에우세비우스

### 1. 팔레스티나의 수도 카이사리

카이사리아는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황제)의 이름을 본떠 붙여진 이름이며, 팔레스티나 지방의 수도이자 수석 주교좌였다. 3-4세기에 이곳에는 아주 큰 도서관이 있었다. 이 도서관은 오리게네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많은 책을 가져오고 그 후로도 계속 책을 모으면서 그 토대를 마련했다. 오리게네스가 죽은 뒤에는 팜필루스가 뒤를 이어 에우세비우스와 함께 그때까지 나온 그리스도교 서적을 수집했다. 두 사람은 도서관에 소장된 30,000여 두루마리의 목록을 작성하고 아직 출간되지 않은 오리게네스 작품을 출판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오리게네스의 [헉사플라]를 필사한 성서 50권을 이곳에서 주문했으며, 히에로니무스는 당시의 많은 공동체가 이 구약성서 비판본을 사용했다고 전한다.

### 2. 에우세비우스의 생애

에우세비우스는 서기 260-264년 사이에 태어났으며, 스승 팜필루스의 제자였다가 나중에는 협력자가 되어 오리게네스가 세운 도서관을 발전시키고 성서를 연구하는데 헌신했다. 그는 그리스도교가 격변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살았던 인물이다. 당시 교회는 두 위기, 즉 301-313년의 박해와 아리우스 논쟁에 휩싸였다. 이 두 사건은 그의 생애와 저술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에우세비우스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아리우스를 한때 지지하여 안티오키아 주교회의에서 파문되지만, 최초의 전 세계 공의회인 니케아 공의회(325년)에서 자신의 정통 신앙을 변론하여 복권되었다.

- 장인산 베르나르도 신부(청주교구)